

01 교회소식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주님의 영적 장수, 우리 교회 남지역장, 조장, 구역장들이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다.

02 생명의 말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하나님께서서는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의로운 사람을 칭찬하신다.

03 기획특집

신앙의 목표를 이루려면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 가지 분야를 점검해 본다.

04 간증

“수련회 때 응답받았어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전체기도로 시력이 회복된 주현권 목사와 하지정맥류를 치료받은 프랑스 릴루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649호 2014년 8월 3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영혼들을 깨우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남지역장·조장·구역장 연합회



남지역장연합회, 남조장연합회, 남구역장연합회 임원들과 일꾼들이 지난 8월 24일 주일, 각각 부흥을 위해 모였다(윗줄 왼쪽은 남지역장, 오른쪽은 남조장, 아랫줄은 남구역장).

우리 교회는 나이별로 구분된 선교회 조직과 더불어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교구 조직이 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는 교구 조직은 대대교구, 대교구, 교구, 지역, 조,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2014년을 맞아 새롭게 조직된 남지역장, 조장, 구역장 연합회가 주일마다 말씀무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영혼구원에 힘쓰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며(고전 4:20),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돼야 한다.

이에 남지역장연합회는 매주 주일 1부 예배 후, 남조장연합회는 주일 아침 8시 30분에, 남구역장연합회는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자체적으로 말씀무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십자가의 도’를 비롯해 사랑장, 팔복,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등의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무장하며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불같이 기도하고 있다.

그 결과 신속한 영적 성장을 이루며 심방을 통해 새신자, 장결자, 낙심자를 깨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예배인도나 설교가 가능하며, 영적인 사랑으로 성도들을 갈무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더욱이 남장년 구역예배가 활성화돼 성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간증을 나누며 영적 충만함을 더해 주고 있다.

28교구 남구역장 송이희 집사(56)는 “B형 간염으로 몸도 마음도 심히 쇠약할 때 전도 받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그 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전도에 힘썼고 지금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구역장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했다.

22교구 남조장 이재근 장로(48)는 “의류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를 좇아 일을 할 때 순간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십일조

도 늘어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했다.

17교구 남지역장 임낙홍 장로(47)는 “지역장 사명을 수년간 감당하면서 영혼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우며 제 마음과 시야도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영적 성장을 간증했다.

한편,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공해병을 치료받아 건강한 삶을 되찾고 현재 범무법인 ‘광장’에서 공정거래사건을 맡고 있는 남지역장연합회 회장 박흥기 장로(55)는 “남지역장은 총 44명으로, 한 명의 지역장이 2~3명의 조장과 7~9명의 구역장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역예배 등 교구 모임과 개인 심방을 통해 죄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남장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영육 간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와 목자의 힘이 되기 위해 열심히 교회 부흥에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믿음의 기업 ‘중앙브레인’ 대표, 남조장연합회 회장 신행철 장로(55)는 “남조장연합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목자에게 받은 진한 사랑을 영혼들에게 전하며 교구 부흥으로 기쁨이 되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우리 교회 번역국 팀장이며 남구역장연합회 회장인 이상원 장로(47)는 “남구역장연합회는 8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심방부흥대회를 열어 영성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며 영혼 갈무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많은 영혼과 함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가정은 물론, 직장도 교회 등 온 집에 충성하고자 힘쓰는 남지역장, 조장, 구역장들의 헌신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양 떼의 믿음을 성장시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돼 세계 교구화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0:18)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우리가 영혼이 잘되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비진리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로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해야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되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중심을 다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중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3)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하인을 고쳐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서 고쳐 주시려 하자 그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을 귀히 여기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믿음은 사모한다고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이루고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마음이 선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일을 보고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4)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야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귀신들린 딸을 치료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개 취급하는 예수님께 화를 내거나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

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믿음과 겸손에 감동을 받고 딸에게서 귀신을 몰리쳐 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한 중심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 믿음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믿음으로 심는 것도 의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만일 부요하기 원한다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물질을 심으면 됩니다. 특히 십일조와 감사예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영혼을 구원하고 성전을 지으며 선교와 구제에 쓰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쓰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십니다.

따라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으로 즐겨 심어야 합니다.

6)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친히 인도하심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믿고 의뢰하는 자녀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세상이나 자기 지식을 더 의존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참아 기다리며 응답받을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살전 5:16, 18).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 순종하

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끄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무리하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먼저 작은 일에 순종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함으로 더 큰 영적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명하셔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2.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우리가 육적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고 칭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듯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정과 욕심은 죄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끊어야 합니다.

다윗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후 부하를 죽게 함으로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간은 욕심 때문에 외투와 은금을 훔쳐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 돌에 맞아 죽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이 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사 임금은 정과 욕심을 단호히 끊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니 더 이상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태후의 위를 폐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면 정과 욕심을 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고, 어떠한 질병이라도 치료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므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의롭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은 극히 드물었지요. 간혹 칭찬하실 때에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기념하리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막 14:6, 9).

주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을 알려 주어야 그 행함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1.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사람

1)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단을 쌓아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식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에 양식 삼아 지켜 행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2)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교회 오시는 길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 11:00 PM |
| 금요일아침예배 | 11:00 PM |
| 수요예배 | 7:00 PM |
|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인] | 8:00 PM |
|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 9:00 PM |
|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 3:00 PM |
| 다녀오실가요 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
| 새벽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독서시 **우송료**만은 **정기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신앙의 목표를 향한 점검 리스트 3

참된 신앙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닮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리라. 신앙의 목표를 향해 얼마나 정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봄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바란다.

1. 영에 대한 목표가 변함없는가?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다보면 처음 정한 대로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가령, 달리기를 할 때 목표지점을 바라보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시선이 흐트러진다면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경주도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거나 중도에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신속히 그 목표지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영의 것만 바라보고, 영의 것만 듣고, 영의 것만 생각해야지.' 하는 각오로 신앙의 경주를 했다면 텔

레비전을 보는 대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세상 오락을 취하는 대신 설교 말씀을 다시 들으며,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쫓기 보다는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쓸 것이다.

따라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간다고 하면서도 다시 세상의 오락이나 친구들, 세상 재미를 찾아 영의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취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성도들에게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땅엣 것을 바라보도록 만들어간다.

그렇다면 나는 흑여라도 사단의 유혹을 받아 돈과 이성, 명예와 권세, 세상 쾌락 등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모임보다 세상 모임이 더 좋고 즐겁게 느껴지는 않는지, 하나님 보다 세상을 의지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무리 목표한 바를 변경하지 않고 바라보며 달려가려고 해도 불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힘이 올 수 없다. 또한 진리의 지식으로 열심히 무장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거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니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심음의 과정이 있어야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이 많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시간에 잠깐 드리는 기도가 신앙인으로서 기도생활의 전부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사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습관을 좇아 기도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기도하

지 않고 신앙을 지켜 구원받기란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없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영의 세계를 알아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지 않고는 충성하며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영혼이 잘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마음 중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선의 행함을 얼마나 이뤄가고 있는가?

신앙의 목표를 향해 불같이 기도하며 달려 왔다면 과연 거기에 맞는 선의 행함은 얼마나 이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성결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치 않고 죄를 버리려는 관심과 노력은 많은 반면, 선을 행하는 일에는 관심과 노력이 적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더 쉽게 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단순히 악을 버리므로 선해지려는 것보다 선을 행하므로 선을 이루는 것은 그 깊이가 다르다. 엄마에게 매를 맞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녀와 엄마를 행복하게 해 주려고 노력하는 자녀가 있다면 누가 더 빨리 변화되어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한

대로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선을 행위적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만들어가야 한다. 미운 사람 딱 하나 더 준다는 속담처럼, 상대에게 무언가 더 주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상대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자체를 만들어 가려는 소망이 간절해야 한다.

내가 선을 행하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상대를 섬기는 마음,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얼마나 이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평안하고 행복을 느껴야 이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에는 향기가 있어서 아무리 작은 선의 행함이라도 향이 있지만 아무리 깊고 큰 선이라도 그것이 이론에만 머무

르면 거기에는 향이 없다. 선은 생각하고 궁리하며 연구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또한 선은 쌓으면 쌓을수록 더 커지는 특징이 있다. 작은 선이 쌓이다 보면 다음에 더 큰 선이 나오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 더 깊은 선이 나오게 된다.

머리로 알아서 이론적인 것을 의무적으로 행하는 선이나 '내가 이만큼 열심히 선을 행했으니까.'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선이 아니라, 마음에서 선한 느낌으로부터 나오는 선, 그런 참 선을 이뤄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선을 역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 곧 이론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정 마음에서부터 선이 좋고 행복해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8.31~9.06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천국 46-50
- 축복 4
- 창세기 강해 24-28
- 공의
- 일곱교회 22-25
- 순전
- 요한계시록 강해 27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9-13
- 영의 사람
- 선(2013)

GCN TV설교

- 멈추지 마시다 2 (이수진 목사)
- 같은 상황 다른 마음 1 (이미경 목사)
- 영의세계 17-18 (이희선 목사)
- 음기강해 2 (신동초 목사)
- 열재앙 4 (정구영 목사)
- 믿음의 경주 (조소영 교육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15
- 옛날 옛적에 7
- 모두 드려요 14
- 흥겨운 소리 9
- English 5
- 만민지킴이 8
- 찬양 드려요 21
- 알콩달콩어쁜울동 18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3
- 뷰티풀 라이프 7
- 플로리스트 2
- 향기 22

해외성회 및 교육

- 필리핀 연합대성회 2
- 회상 14
- 2014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 1-2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권능의 기도로 시력까지 회복되니 행복합니다”



간증하는 주현권 목사 (3대대 대교구장, 61세)

저희 가족은 주님을 영접한 후 35년 동안 병원이나 약국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6년 말경부터 시력이 약해져서 2000년부터는 0.3(우안), 0.5(좌안)로 항상 안경을 착용하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8월 3일, 만민 하계수련회 시작 전날입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종기에서 빠져나온 종기 뿌리를 보았습니다.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이번 수련회는 어느 해보다도 권능의 역사가 더 크게 대폭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게도 영육 간에 축복의 수련회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와 벅찬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첫날 저녁, 교육 시간에 은혜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빗물로 안경이 뿌옇게 돼 저는 안경을 벗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흐릿하게 보이던 사물이 어느 순간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어! 시력이 좋아졌네!’ 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어 읽어 보았습니다. 놀라게도 작은 글씨도 잘 보였지요.

이어진 은사집회 때 눈에 손을 얹고 당회장의 환자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시력이 더욱 좋아져서 다음 날 체육대회 때에는 안경 없이 릴레이 선수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상경할 때는 야간에 빗길임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만민중앙교회를 만나 몽땅 치료받고 포근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어요”

비엔 후옹 릴루 (프랑스, 43세)

저는 오래 전부터 여러 종교를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었지요. 그러던 중 친구 자넷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에 대해 알게 됐고 인터넷으로 금요철야예배를 드렸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말씀은 참으로 감동이 됐고 제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큰 기쁨을 맛보았지요. 그 뒤 인터넷으로 매주 주일예배, 금요철야예배를 드리고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참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는 ‘전국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날, 프랑스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만민중앙교회에서 금요철야예배를 드린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당회장의 밝게 빛나는 얼굴과 미소를 보며 악수하는 순간, 제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상처 난 마음이 치유되고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친구 자넷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왼쪽 귓속이 가려웠습니다. 그래서 살짝 후벼더니 딱지가 하나씩 떨어지면서 매끈한 피부가 만져졌습니다. 얼마

나 오랜만에 만져보는 매끈함이었지요.

사실 저는 5년 전부터 왼쪽 귓속에 습진이 있었습니다. 가려워서 귓속을 파면 피가 나고 고름이 흘러나왔지요.

통증이 있었으며 고막은 부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귀도 중이염으로 고막이 부어 있어서 귀를 후비려고 면봉을 넣으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왼쪽 귀의 염증은 신경이 연결돼 있는 왼쪽 잇몸까지 염증을 일으켰지요. 통증을 가라앉히는 연고를 바르면 완화되기는 했지만 다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된 뒤부터 연고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무안단물을 뿌렸더니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당회장님과 단 한 번 악수를 한 뒤 오른쪽 귀의 중이염, 왼쪽 귓속 습진, 왼쪽 잇몸 염증이 다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로 왼쪽 발목을 빼

어 5개월간 휴직한 후에도 통증이 남아 있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걷기가 불편했는데, 당회장님과 악수한 다음 날은 높은 굽의 구두를 하루 종일 신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지난 8월 초에는 또 한 번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만민 하계수련회 첫째 날 저녁 은사집회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하지정맥류, 발에 타는 문제로 인한 심한 통증, 종종 기억력이 사라지는 문제, 가려움증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특히 5년 전, 막내 아이를 출산하면서 생긴 하지정맥류는 아주 심각해서 사람들이 제 다리를 볼까봐 치마를 입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직업상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했기에 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가끔 진통제를 복용했으며 압박붕대를 감아야

했지요. 4시간 이상 서 있으면 피가 아래로 몰려서 정맥류가 부풀어 올랐고 쉬거나 잘 때는 다리를 위로 올린 채로 있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통증을 멈추려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당회장의 기도를 받은 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람과 같은 시원함과 마음속의 뜨거움을 느꼈고, 기쁨의 눈물이 흘렀으며 큰 평안이 임했습니다. 저는 하지정맥류가 사라졌는지 제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왼쪽 다리의 증상은 모두 사라졌고 오른쪽 다리에는 약간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진리로 양육해 주시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넷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안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퉁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친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암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2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동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남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7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9458-3922
- 김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완창로 162 ☎010-3430-3312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평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33)641-3790, 010-6334-7750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